



빛의 교회

안도 다다오, 빛을 설계하다

손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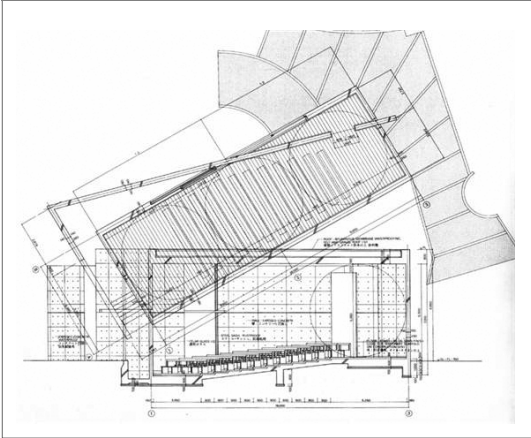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thsohn@cerik.re.kr

필자가 건축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축가는 소설 같은 삶을 산 일본의 안도 다다오(Tadao Ando)다. 건축가가 되기 전에는 권투 선수와 트럭 운전사로 일했고,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독학으로 건축을 배웠다. 대표 작품으로는 1989년에 건설된 '빛의 교

회'를 비롯해, 교토의 Times I(1985) & II(1991), 고베의 로코 하우스(1993), 오사카의 산토리박물관(1994), 가고시대학의 이나모리(1994) 등이 있다. 1969년에 안도 다다오 건축연구소를 설립해 '스미요시의 연립주택'으로 일본건축학회상을 수상했고, 1995년에는 건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¹⁾을 받았다.

1) 1979년 제이 프리츠커(Jay A. Pritzker)가 만들고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는 상으로 '건축 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들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함. 수상자 선정 과정이 노벨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건축계의 노벨상'으로도 불리며, 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수여됨. 1979년 미국의 필립 존스를 시작으로 2013년 일본의 이토 도요까지 35명이 수상자로 선정됨.

빛의 교회 평면도 및 건축 개요



• 주소	이바라키시 기타 - 카すが오카 4-3-50
• 용도	교회
• 설계 기간	1987. 1~1988. 5
• 시공 기간	1988. 5~1989. 4
• 구조	철근콘크리트
• 대지면적	836.6㎡
• 건축면적	113㎡
• 연면적	113㎡
• 규모	지상 1층

느낄 수 있는 건축물 추구

안도 다다오는 자서전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축이 기쁨을 주는 건축이다. 기성의 개념과 고정 관념, 경제적인 제약 등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건축이다. 도전하지 않는 건축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나 스스로도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건축을 대할 것이다”라며 그의 건축관을 밝혔다.²⁾

그는 건축가라면 건축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도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설계한 건축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채워진 그의

2) 안도 다다오, 이규원 옮김, 「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 안그래픽스, 2009.

자서전을 읽어보면 바쁘고 빽빽한 도시라는 공간에 ‘여유’라는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축물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는 단순히 건축물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안도 다다오는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심에 둔다. 건축물에 물, 바람, 빛, 소리 등 자연이라는 요소를 투입해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연의 양상을 즐길 수 있게 한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자연은 벽, 바닥, 천장 등을 통해 각각 다르게 표현되며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건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안도의 건축 언어인 물, 빛, 바람, 소리 중에 빛의 다양한 성질과 표정을 그려낸 작품이 이번에 소개할 ‘빛의 교회’다.

빛의 십자가와 명암 대비

‘빛의 교회’는 안도 다다오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설계한 다수의 종교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1987년 고베의 ‘바람의 교회’, 1989년 홋카이도 ‘물의 교회’, 1991년 아와지시마의 ‘물의 사원’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종교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오사카 근처 이바라키시의 오사카만국박람회장 근처의 한적한 주택가에 지어진 ‘빛의 교회’는 연건평 약 50평 규모이며 아담한 지역 밀착형 교회로 외부에선 단순한 박스 형태의 건축물이지만 내부에서는 절제된 빛의 노출을 통해 예배당에 경건함을 가득 채우고 있다.

안도 다다오는 턱없이 부족한 건축비와 좁은 부지 등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종교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1년을 고심한 끝에 설계를 마친 것으로



자연과 인간과 공간의 합일점에

빛의 교회 외부는 전술하였듯이 단순한 박스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일 듯 말 듯한 외벽에 걸린 십자가가 종교 건축물임을 상상하게 하지만 어디에서도 “나 교회야!”라는 외침을 들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풍토를 받아들이고 이어가려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건축물이 갖춰야 하는 기능에만 주목하지 않고 건축물이 놓인 지역의 정신과 문화를 버리지 않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찾기 힘든 교회 입구를 포함해 빛의 교회 외부에는 매우 좁은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

좁은 대지 위에 최대한 종교적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자연으로부터의 분리를 택하기보다는 인간과 자연과 공간의 합일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다. 마치 왜 빛의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빛의 교회는 직경 5.9m의 구가 3개 내접하는 직방체와 장변 방향으로 약 15도 기울어져 관입하는 자립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 기간은 1987년 1월부터 1988년 5월까지, 시공은 1988년 5월부터 1989년 4월까지였으며 대지면적은 836.6㎡다. 안도 다다오는 빛의 교회가 완성된 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고 한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으로,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 두 사람 혹은 세 사람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곳에 함께 하나니- 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였으면 합니다.’ CERIK